

국내 인증·출시된 휴대용 선풍기 등은 인체보호기준 충족

1. 주요 보도내용('24. 7. 28. 다수매체)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백배의 전자파가 발생하며,
 -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 시판 중인 목 선풍기('22년), 노트북 어댑터('24.7.26.)를 측정하고, 헤어드라이어는 인도네시아 호텔 내 거치된 중국제품을 측정('24.7.20.)
-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여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22.8.1., '23.9.14.)
 - 금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24.7.4)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충북대 김남 교수)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윤희봉	(044-202-4950)
		담당자	사무관	김현호	(044-202-4956)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안전협력팀	책임자	팀 장	김기희	(061-338-4560)
		담당자	연구사	최동근	(061-338-4571)

